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누가복음 강해 13)

성경말씀: 눅5:12-15

그리스도의 사역(눅4:18) 주님의 영이 임하시매 그분께서 1. 영육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선포, 2.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침 3. 포로 된 자들 구출 4.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 선포, 5.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함, 6. 주님께서 받아 주시는 기쁨의 해 선포

지난 시간: 나병을 고쳐 주심,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나병과 죄는 매우 비슷하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오늘은 나병 치유 이후 실제로 죄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살펴보려 함

죄

죄: 사람은 자꾸 약화시키려 하고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크게 비난하고 심판하시는 것

1. 우연히 생긴 일; 가증한 것, 2. 실수; 나병, 3. 결점 혹은 부족; 불법, 4. 우연; 선택, 5. 잘못; 원수 되게 하는 것, 6. 매력적인 것; 치명적인 것, 7. 연약함; 의도적인 것

a. 죄는 성경에 적어도 700번 이상 나온다(단수 죄 448회, 복수 sins 172회, 다른 명사).

b. 죄라는 단어는 창4:7에 가인과 함께 처음 나온다. 창18:20에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두 번째로 나온다. d. 마지막으로 죄는 계18:5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언급된다.

c. 성경은 죄 이야기: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시고 사람에게 치명적인 이 '죄'는 무엇인가?

d. 성경 조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성의 대비: 한 존재의 순수성과 다른 존재의 더러움

e. 2000년 전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마리아의 순결함을 이야기함(마1:20-21).

f. 예수님이 오신 근본 목적: 죄 문제 해결, 그 뒤 30년이 지나서 요1:29

2. 죄의 정의: '과녁에서 벗어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롬3:23) '창조물이 의도적으로 창조자가 마련한 한계 안에 거하지 않으려는 것이 죄다.'-L. S. Chafer

3. 죄의 기원, A. 우주에 들어온 죄의 기원: 땅의 창조 이전에 루시퍼와 그의 추종 천사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음, 그 이후로 사탄은 죄의 원천과 기력이 됨(사14:12-14; 겔28:12-18)

B. 이 세상 죄의 기원: 사람이 선악과 먹음으로써 죄를 땅에 가져옴(창3:6).

4. 죄의 보편성: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롬3:23).

5. 죄의 사악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람의 죄성의 깊이를 잘 이해해야 한다. 죄와 불법(사59:2).

A. 사람의 타락: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의 타락, 그 한 사람의 죄가 그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엄청난 독). 이 정도로 죄는 심각한 문제이다.

B. 하나님의 해결책

1. 하나님의 아들이 극도의 고난을 겪고 죽어서 이것을 제거한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 정도로 죄는 하나님 편에서도 심각한 문제이다.

2.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바른 이해 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3. 불신자의 심판: 영원한 지옥 불(마25:41),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

6. 죄의 결과: 죄의 삯은 사망(롬6:23)

1. 육적 죽음(창5:5; 시90:10)

2. 영적 죽음: 둘째 사망, 불신자(마7:23; 마25:41; 계2:11; 20:6, 14; 21:8)

a. 영적 죽음은 미래에 있지만 불신자는 이 시간 이미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어 있다(엡2:1-12).

b.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잘린 꽃과 같다. 잠시 화려해도 곧 말라버린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7. 죄 사면의 필요 요소: 피 흘림이 없은즉 죄들의 사면이 없다(히9:22).

본문

1.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율법박사, 서기관(눅5:17, 21)

백성의 지도자로서 거짓 대언자들을 구별할 필요와 의무가 있었음(신13, 18).

침례자 요한에게로 사람이 몰려들자 그를 심문함(요1:19-34): 그리스도, 엘리야, 그 대언자

누가복음에서 처음 바리새인이 나옴: '분리하는 자', 포로 생활 이후 말라기 대언자 당시 '하시딤',

처음에는 좋았지만 가면서 율법주의자가 됨. 글자의 포로가 됨, 서기관도 마찬가지(마23:23)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을 들었다고 좋은 성도가 되지 않는다. 위선자가 될 수 있다.
양심에 화인을 맞으면 아무 소용없다. 성경 왜곡, 해석 왜곡, 자기 뜻 관철, 결국 바리새인의 말로

2. 주님의 권능이 함께하며 병을 고침(17): 눅4:18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헤브리 터치’, 안수, 이수라장 인위적 꾸밈 No!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 주신다. 목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3. 나병을 고친 뒤 이번에는 마비 병 환자가 그분께 옵니다(18)
나병은 더러움 자체, 마비 병은 죄로 인한 무기력, 이것 역시 하나님만 고친다(3복음서 기록 중요함).
4. 무리로 인해 지붕으로 가서 덮개를 들어내고 자리에 누인 채 주님 앞으로 내려 보냄(19)
병 고침을 받으려면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죄병도 마찬가지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아야 한다. 죄병도 마찬가지
그리고 믿음을 갖고 와야 한다. 죄병도 마찬가지
이때에 주변 사람들이 도울 수 있다. 죄병도 마찬가지
5. 주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선언하심(2)
병이 먼저가 아니라 죄가 먼저임
이 사람이 병 고침/죄 용서 받은 이유: 믿음, 하나님은 돈, 학식, 지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보신다.
이 사람이 확고한 믿음을 가졌을 때 주변 사람들도 감동받아 그를 도우며 믿음을 발휘함
이때 그 친구들 앞에는 방해물이 없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친구들의 모임이 되기를 원한다.
병이 있고 거기서 나아가 함을 알리는 교회
낫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 미디어 선교 헌금, 서울의 한마음 미션, 한마음 침례교회
6.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말: 신성모독, 하나님만 죄들을 용서하신다. 자기가 하나님인가?(21)
바로 이 점을 보여 주시고자 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십자가 처형의 원인
7. ‘죄들을 용서 받아라’와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사람 편에서는 둘 다 어렵다(23).
그래도 사람 편에서는 말로 ‘죄들을 용서 받아라’고 하는 것이 쉽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둘 다 쉽다. 그런데 사람에게 필수적인 것은 죄들의 용서: 이것이 없으면 둘째 사망
예수님은 이미 이 환자의 믿음을 보셨고 그래서 죄들도 용서하셨다.
믿음 없이 죄들의 용서 불가능(히11:6)
8. 내가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것을 보여 주려 한다. ‘일어나 걸어가라’(24)
사람 편에서는 정말로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셔서 자신의 권능(파워)을 보여 주심
이로써 예수님은 육신의 병과 죄의 병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 주심
예수님은 마귀들도 내쫓으심(눅4:33-36)
즉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메시아(24절의 사람의 아들)요, 살아 계신 하나님임을 입증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느니라(고전4:20; 롬14:17).
우리의 믿음 사역(성경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한다.
죄병과 육신의 병에 들린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기를 원한다.
마귀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성경 사역과 교회 사역을 방해하는 일에서 물러가기를 원한다.
9.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감
예수님의 치유는 즉각적이며 영원하고 즉시 새 삶을 보여 주었다.
10. 우리가 이상한 일들을 보았다.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한다. 7년 역사, 아침하는 말, 타협, 오직 말씀,
킹제임스 성경, 교회가 된다. 병자가 낫는다. 복음이 선포된다. “이상하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말씀으로 육신의
병도 주님이 치유해 주신다.